

헌혈 실적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201500849 김슬기
201600254 신예슬

목 차

01

헌혈이란?

- 헌혈과 수혈
- 헌혈의 종류

02

헌혈 현황

- 대한민국 헌혈률
- 혈액 부족

03

문제 제기

- 혈액 공급 부족
- 혈소판 부족
- 연령 불균형

04

해결방안

- 홍보 방식 개선
- 3040대 헌혈 증대

05

결론요약

- 소제목
- 소제목
- 소제목

[01 헌혈이란?]

헌혈의 정의

헌혈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의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행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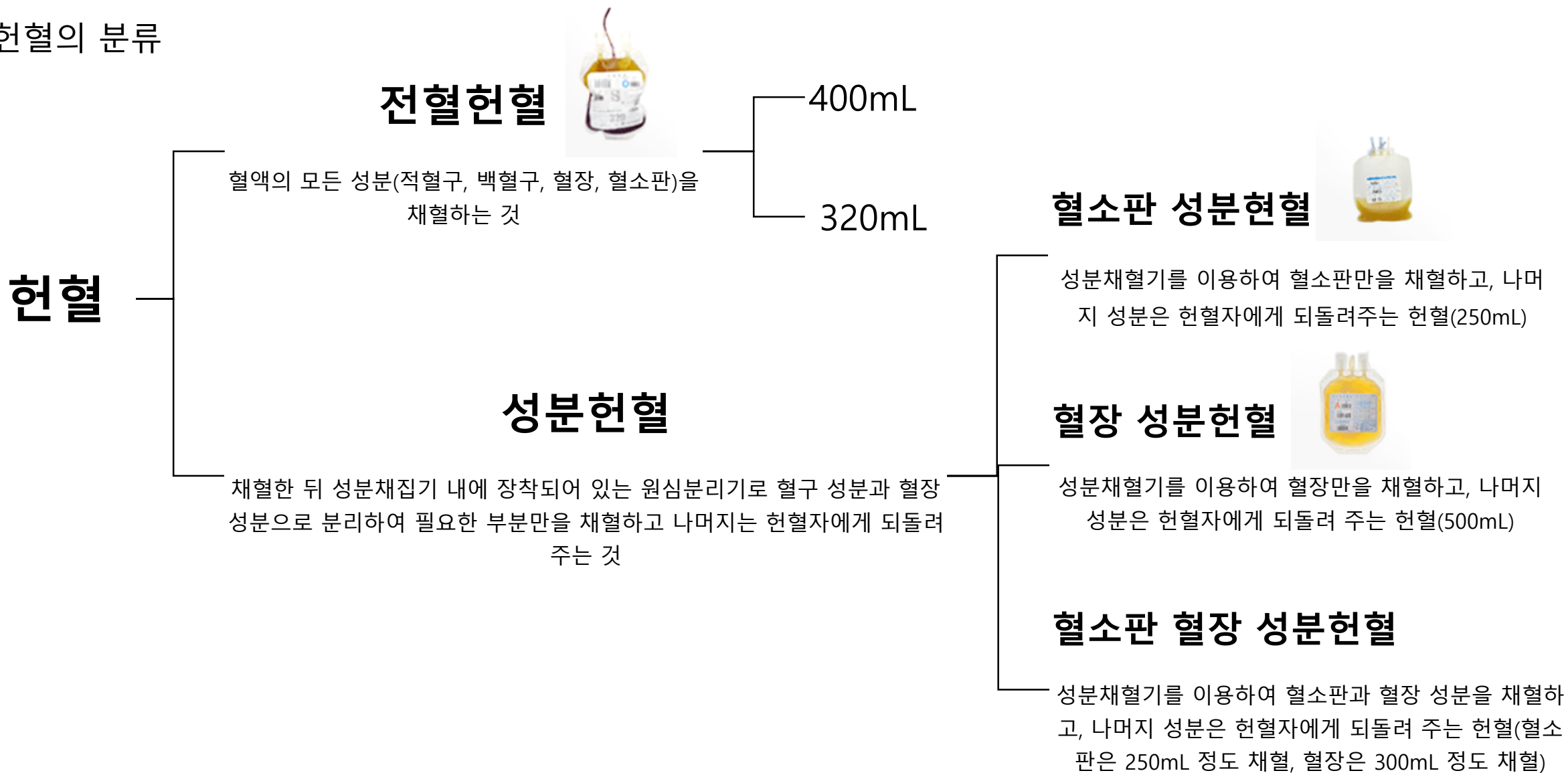


수혈

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이나 일부 성분을 환자의 혈관에 주입하여 받게 하는 치료를 말한다.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혈액형이 적합해야 한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고(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헌혈의 분류



[02 현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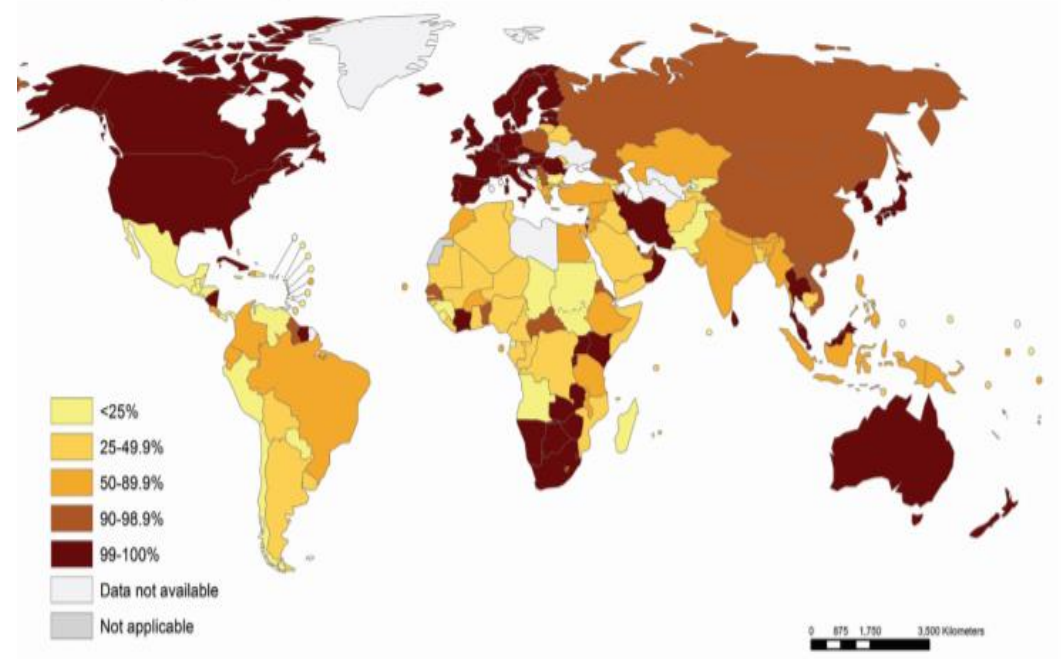
Q. 대한민국의 헌혈률은 높은 편이다?

WHO에서 발간한 2016년 Global Status Report on Blood Safety and Availability에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위 3% 이상의 헌혈률**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 하지만 헌혈률에는 헌혈부적격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헌혈률은 실제 헌혈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헌혈률 = 총 헌혈실적 / 대한민국 국민 전체인원수 * 100

실제 헌혈률 = 헌혈자 수 / 헌혈가능인구 * 100

Proportion of voluntary non-remunerated donations (whole blood and apheresis donations combined) by country, 2013



A. 두 집단 평균차이 분석

```
> wilcox.test(p,r,paired=TRUE,alter="greater",conf.int=TRUE,conf.level=0.95)
```

```
    wilcoxon signed rank test
```

```
data:  p and r
```

```
V = 91, p-value = 0.0001221
```

```
alternative hypothesis: true location shift is greater than 0
```

```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

```
 0.815    Inf
```

```
sample estimates:
```

```
(pseudo)median
```

```
 1.115
```

대한적십자사의 2018년 헌혈자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p-값이 **0.0001221**이 나왔기 때문에 **헌혈률이 실제헌혈률보다 과대평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혈액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혈액의 부족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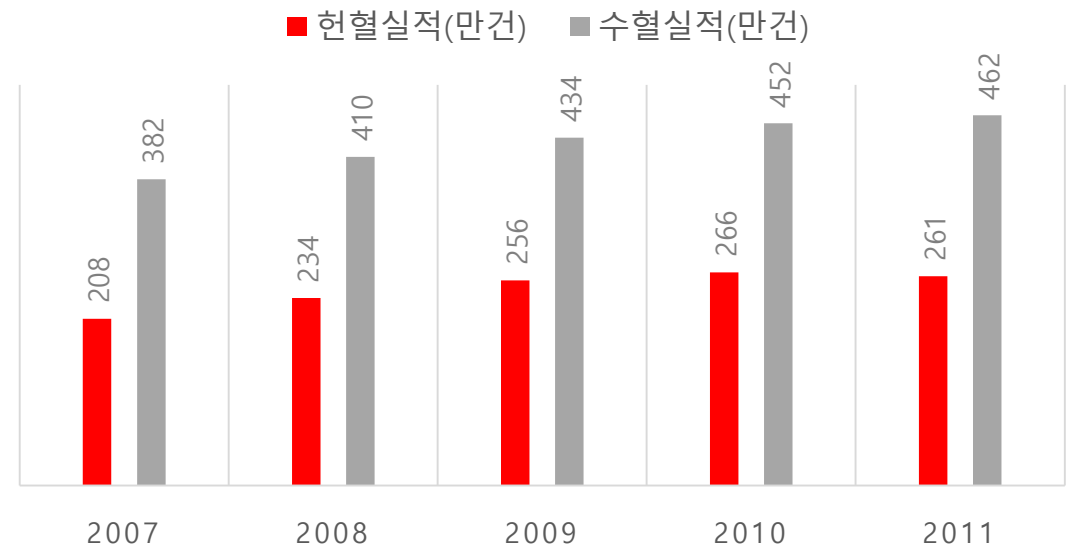
혈액의 부족 사태는 혈액의 생산과 수요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혈액이란 물질의 특징상 사람이 아니면 생산해낼 수 없는 물질이므로 그만큼 항상 일정한 헌혈과 일정한 수요가 필요로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부의 혈액 수급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혈액공급에 비해 헌혈실적이 약 1.7배정도 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혈액부족국**이다.

혈액 수급 연도별 변화

출처: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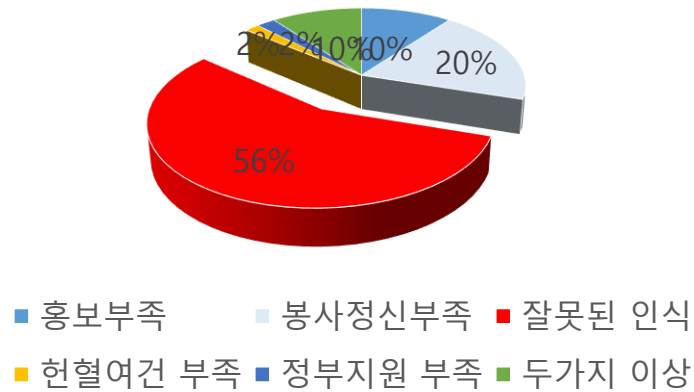


[03 문제 제기]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3가지

1. 잘못된 인식

우리나라 헌혈 저조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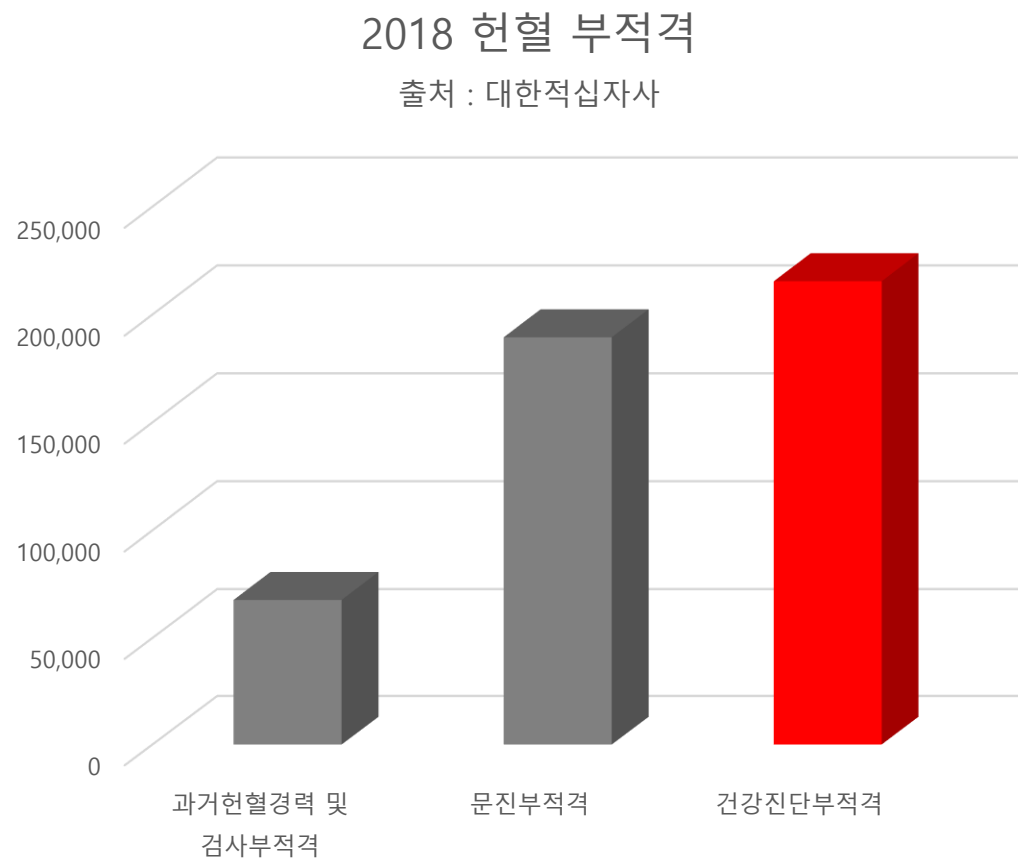
⇒ 남자 144명, 여자 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헌혈저조이유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많은 이유로 뽑혔다.

출처:정혜경(2004),헌혈태도가 재헌혈의지 및 헌혈권유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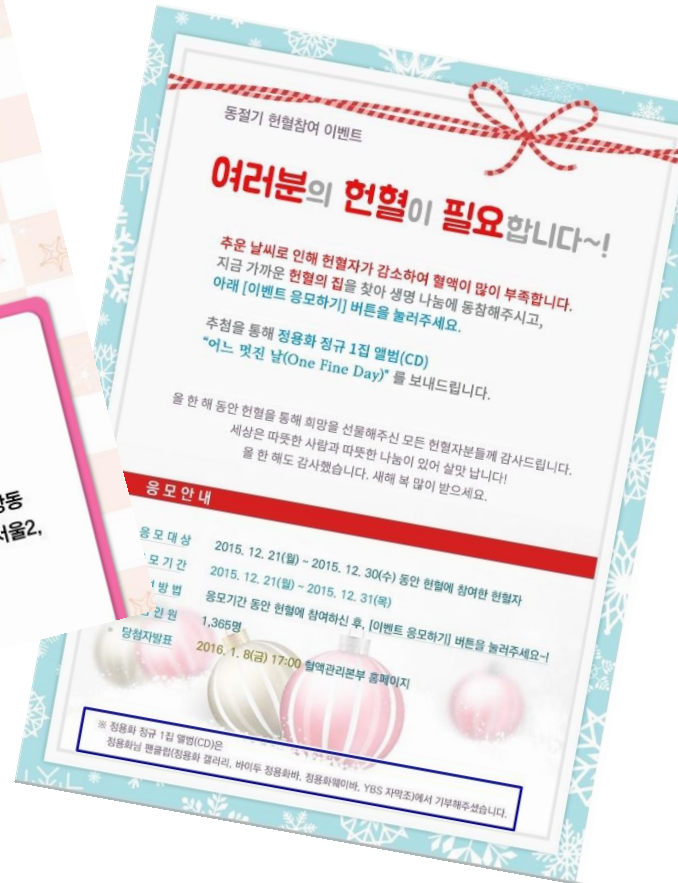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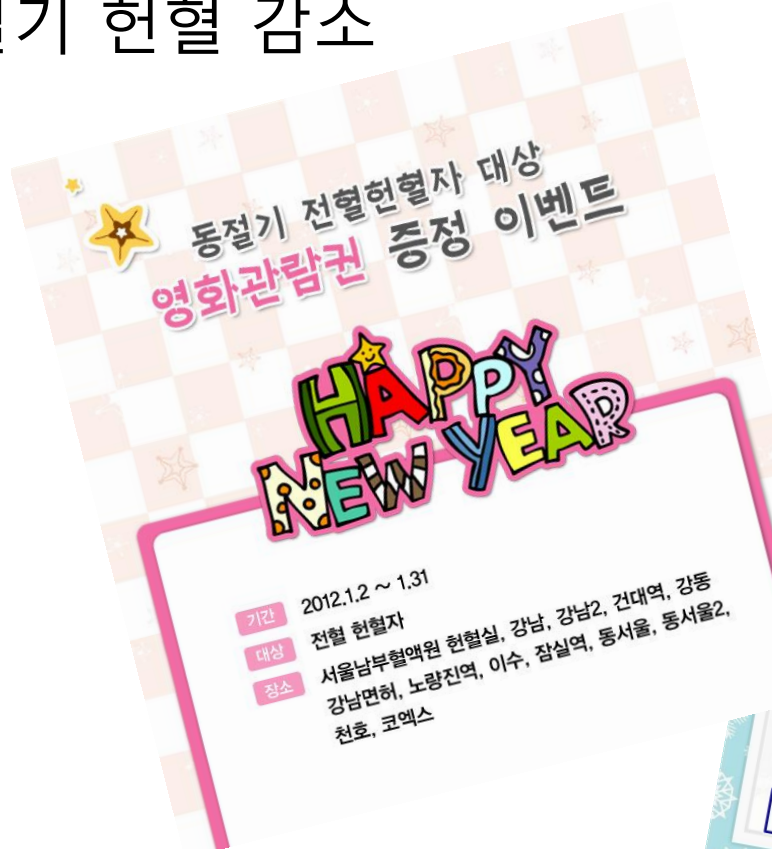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3가지

2. 건강진단 부적격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3가지

3. 동절기 헌혈 감소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3가지

3. 동절기 헌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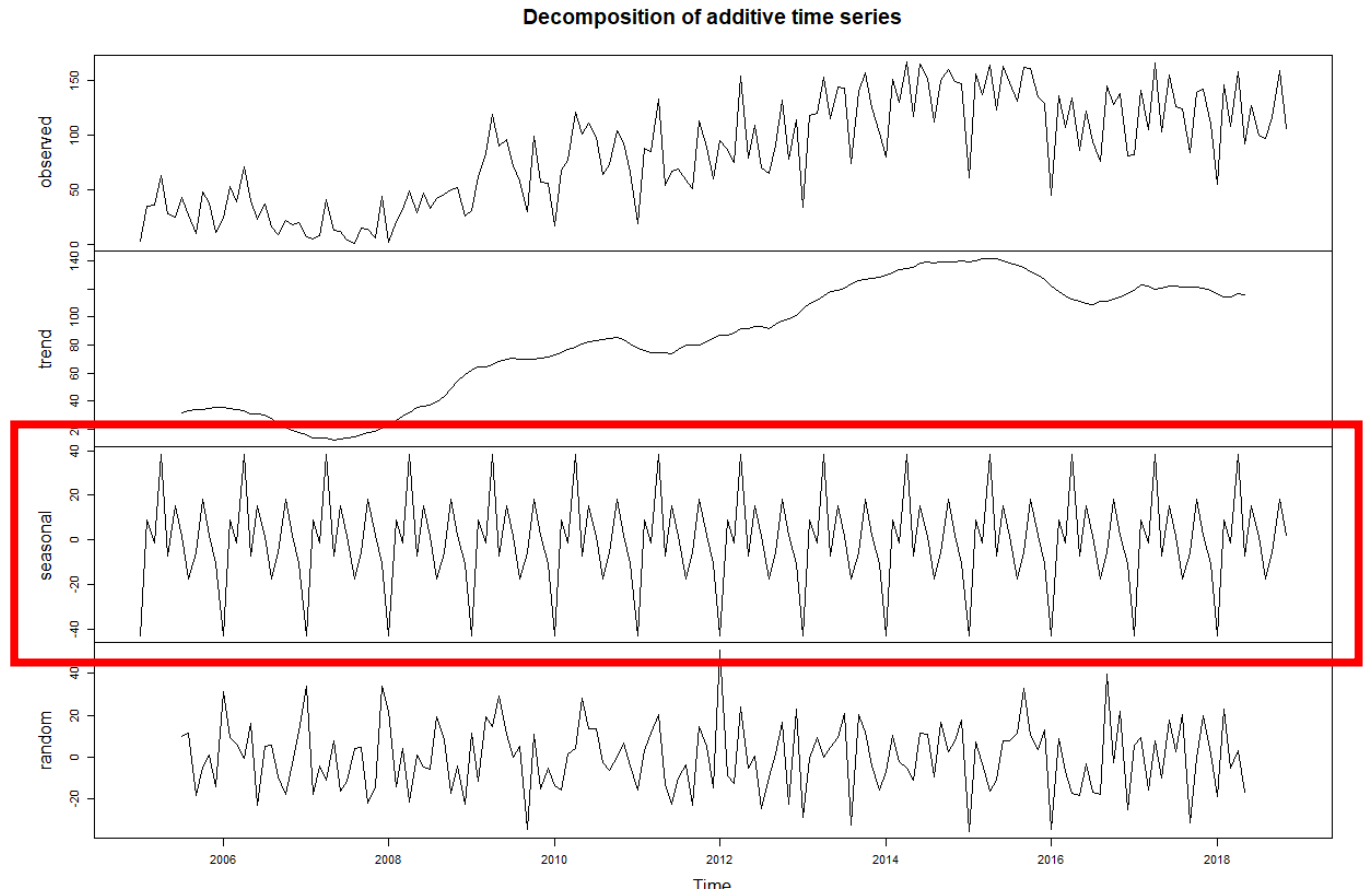
```
> mon<-ts(month,frequency=12,start=c(2005,1))
> mon
```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05	3	35	36	63	28	25	43	27	10	48	38	11
2006	24	53	39	71	40	23	37	16	9	22	18	20
2007	7	5	8	41	13	12	4	1	15	14	6	44
2008	2	21	32	49	29	47	33	42	46	50	52	26
2009	31	62	83	119	90	96	72	58	30	99	57	56
2010	17	68	77	121	101	111	98	64	73	104	93	66
2011	19	88	85	133	54	67	69	59	51	113	89	60
2012	95	87	75	154	79	109	70	65	91	132	78	114
2013	34	118	120	153	115	144	143	74	140	157	125	102
2014	80	151	130	167	117	165	152	112	150	160	149	147
2015	61	156	137	164	123	163	148	131	162	161	135	129
2016	45	136	107	134	86	122	94	76	145	128	138	81
2017	82	141	105	166	103	155	126	124	84	139	142	110
2018	55	146	108	158	92	127	100	97	116	159	106	

시계열 분석을 통해

동절기에 유독 헌혈자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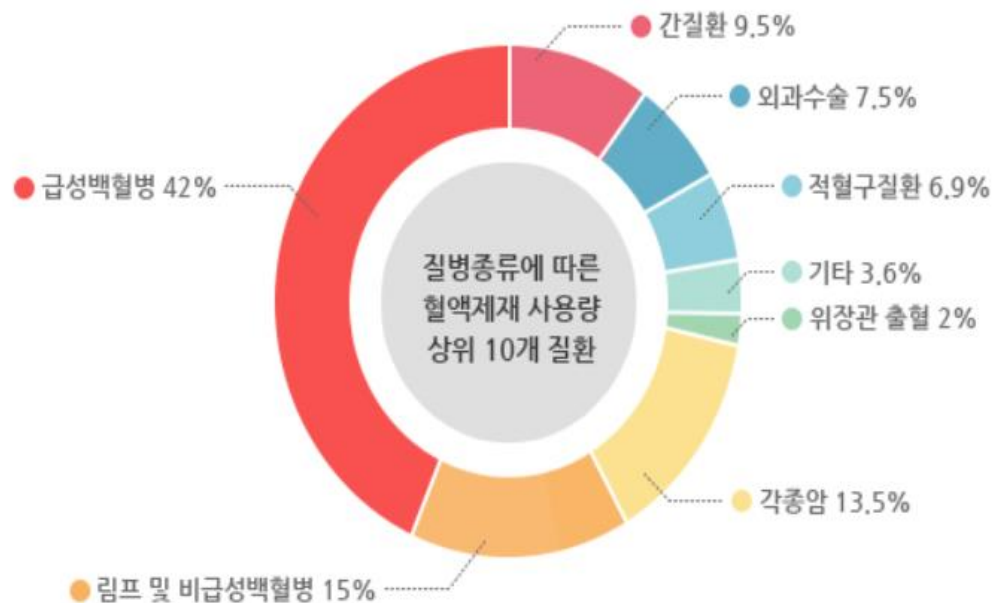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B. 혈소판 부족

성분수혈의 한 종류인 **혈소판 수혈**은 출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치료수단**이다. 특히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및 복합면역, 질환 등의 치료방법으로 골수이식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 혈액종양 및 고형암 환자들의 고 용량의 항암요법이 적용됨에 따라 **혈소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혈소판헌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채집된 혈소판은 실온에서 **최대 5일 동안**만 보존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혈소판공급을 위해서는 건강한 헌혈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질병종류에 따른 혈액제제 사용량
상위10개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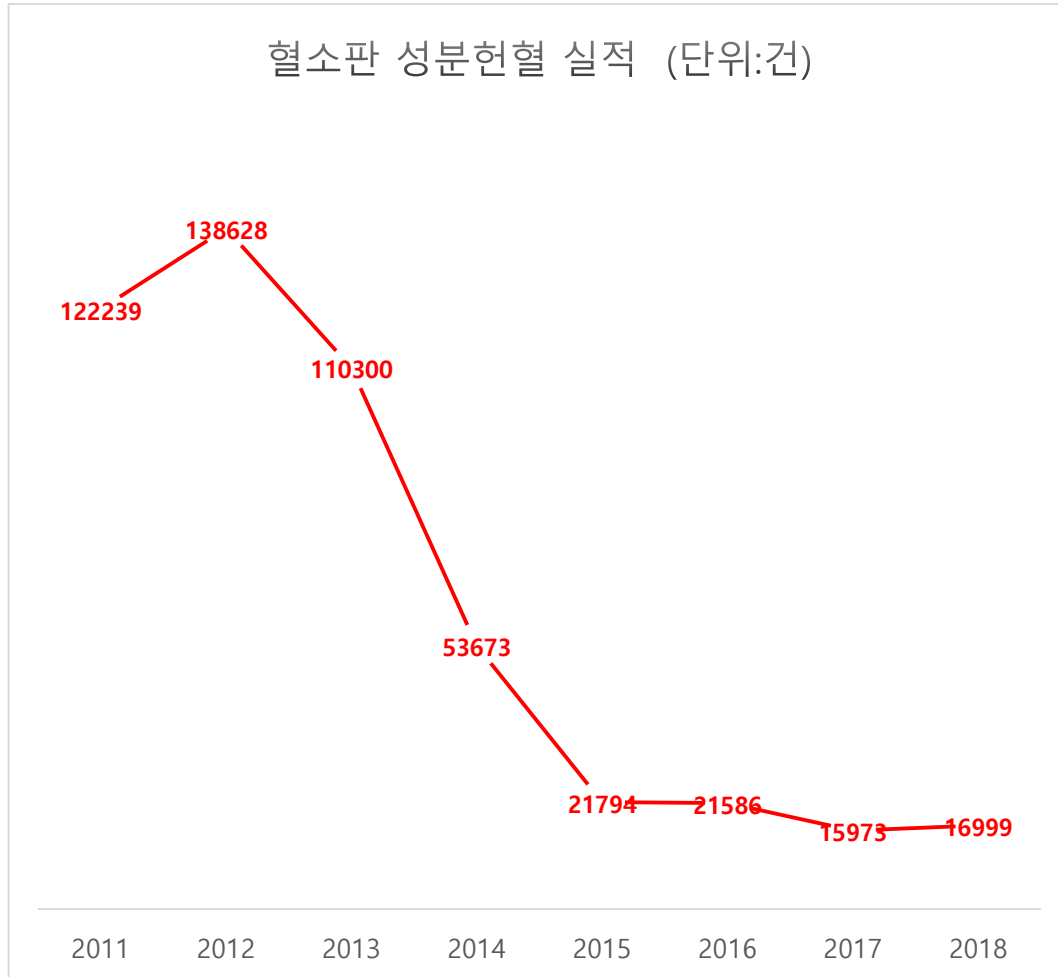
혈소판 성분 헌혈이 왜 필요 할까?

혈소판 수혈은 보통 농축 혈소판과 혈소판 성분헌혈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축혈소판은 전혈로 부터 혈소판을 분리해 농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혈소판의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에 비해 혈소판 성분헌혈은 혈액 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혈소판 만을 선택적으로 헌혈 후 나머지 혈액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인데 전혈보다 **6-7배에 해당하는 혈소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혈에 비해 혈소판 성분헌혈자 수는 미국은 73%, 캐나다는 55%에비해 우리나라는 **25%**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계속 늘어나는 혈소판 수요에 비해 혈소판 공급이 너무 적다.**

PART 3 _ 문제 제기

혈소판 성분헌혈 실적 (단위:건)



기준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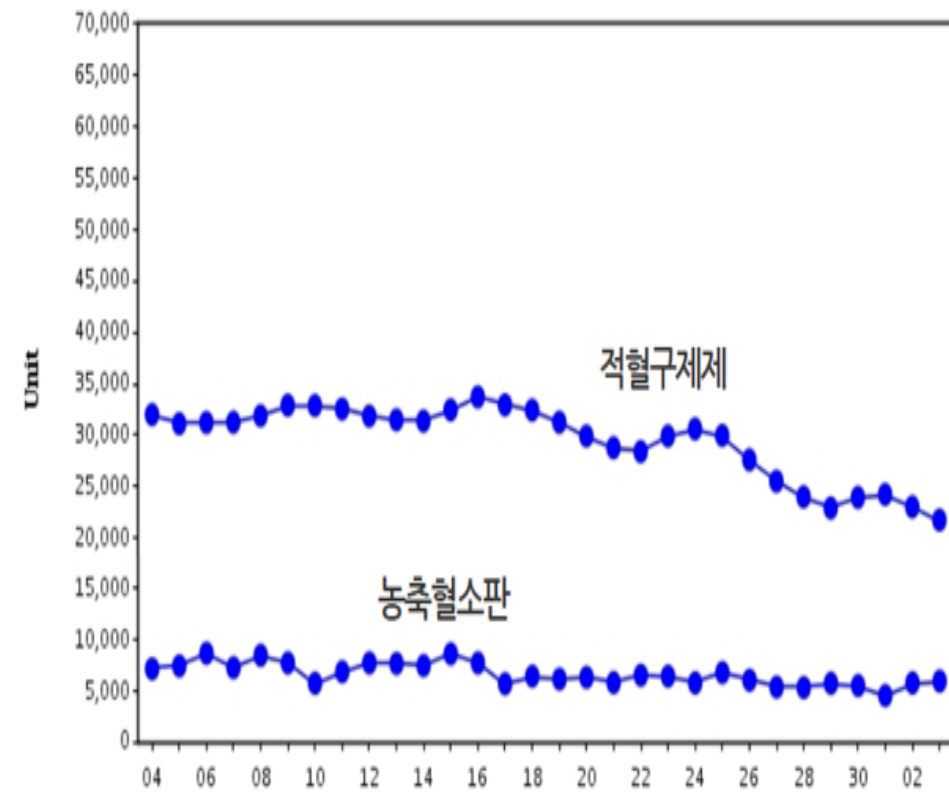
7월

3일

1개월



이 그래프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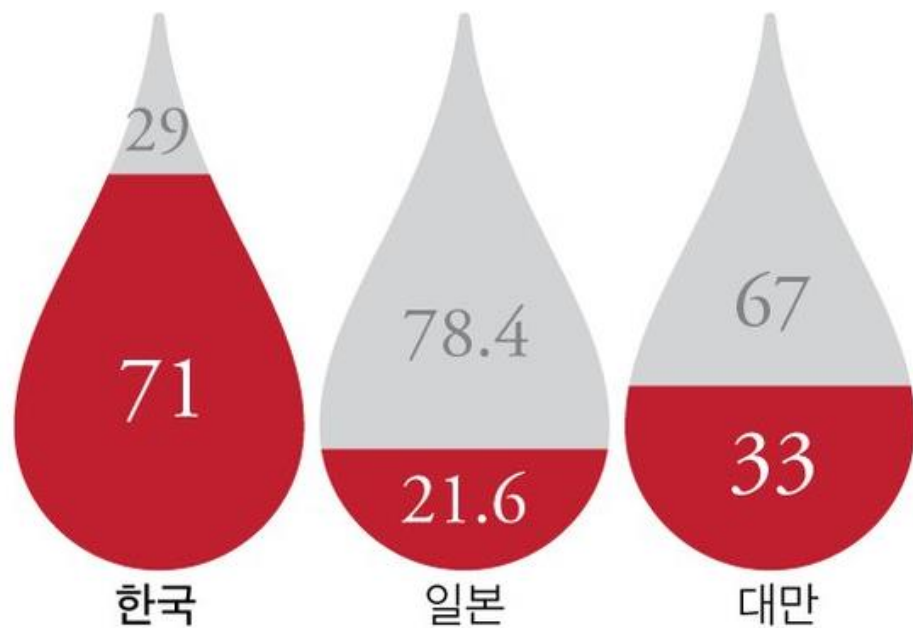


문제C. 1020에 치우친 우리나라 헌혈

연령대별 헌혈자 비율 단위:%

※한국은 2017년, 일본·대만은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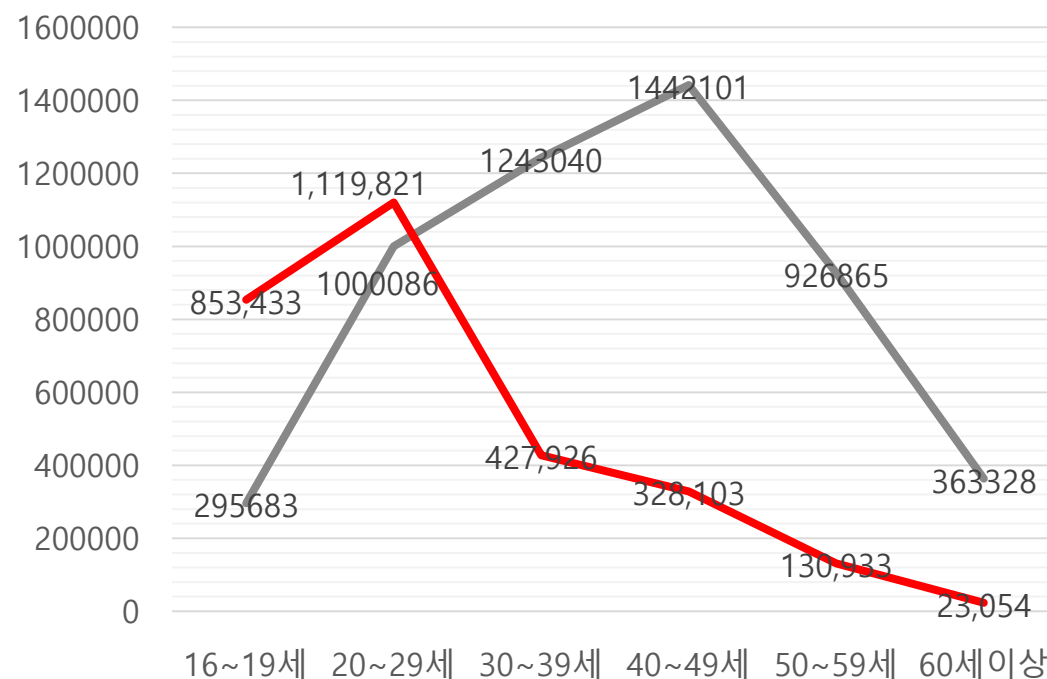
● 10~20대 ● 30대 이상



자료:대한적십자사

연령별 헌혈자 수

— 일본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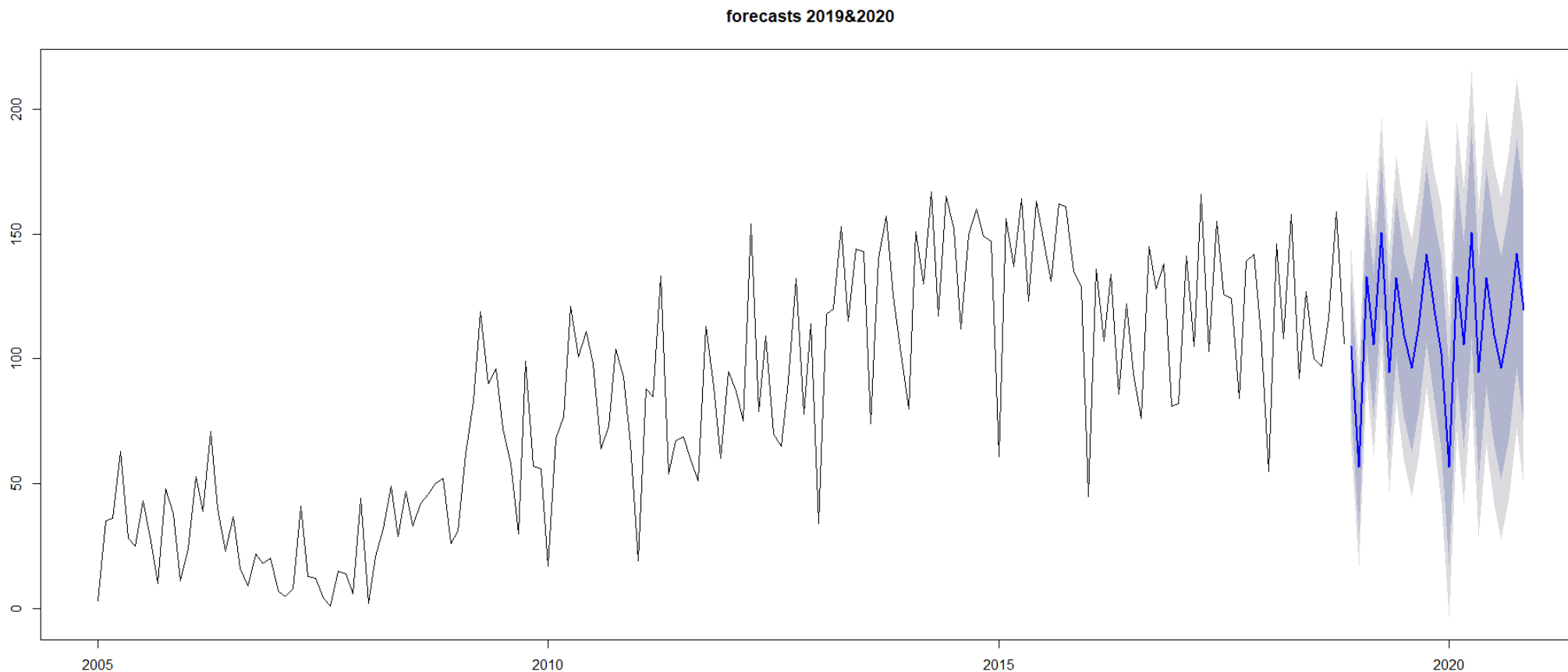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헌혈률은 어떻게 될까?

10대, 20대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헌혈률의 큰 문제점은 인구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고연령층이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수술을 받을 일이 많다. 수술 시 대부분 수혈을 받게 되므로 **혈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
> mon_fcast
```

	Point Forecast	Lo 80	Hi 80	Lo 95	Hi 95
Dec 2018	105.16012	79.72889	130.59134	66.266412	144.05382
Jan 2019	56.55117	30.68671	82.41563	16.994891	96.10745
Feb 2019	132.76401	105.38161	160.14641	90.886241	174.64177
Mar 2019	105.55313	76.82172	134.28454	61.612234	149.49403
Apr 2019	150.68009	120.74032	180.61986	104.891168	196.46902
May 2019	94.45216	63.42333	125.48099	46.997661	141.90666
Jun 2019	132.35623	100.34101	164.37146	83.393177	181.31929
Jul 2019	109.37921	76.46697	142.29145	59.044281	159.71414
Aug 2019	96.41566	62.68494	130.14639	44.828969	148.00236
Sep 2019	113.50059	79.02091	147.98026	60.768478	166.23270
Oct 2019	142.01988	106.85323	177.18652	88.237135	195.80262
Nov 2019	119.60576	83.80768	155.40384	64.857318	174.35420
Dec 2019	102.25357	63.64834	140.85880	43.211960	161.29518
Jan 2020	56.58221	17.20730	95.95713	-3.636519	116.80095
Feb 2020	132.79405	92.42890	173.15920	71.060878	194.52722
Mar 2020	105.58221	64.31118	146.85324	42.463612	168.70080
Apr 2020	150.70823	108.60646	192.81000	86.319129	215.09733
May 2020	94.47939	51.61418	137.34460	28.922705	160.03607
Jun 2020	132.38258	88.81449	175.95068	65.750939	199.01423
Jul 2020	109.40471	65.18846	153.62096	41.781792	177.02763
Aug 2020	96.44034	51.62555	141.25513	27.902039	164.97865
Sep 2020	113.52447	68.15628	158.89267	44.139804	182.90914
Oct 2020	142.04299	96.16255	187.92343	71.874912	212.21107
Nov 2020	119.62813	73.27307	165.98318	48.734185	190.52207



➡ 하지만 **시계열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즉, **늘어나는 혈액의 수요에 비해 혈액의 공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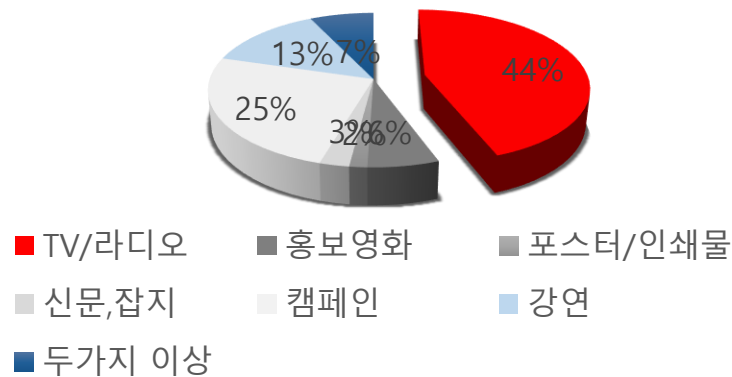
[04 해결 방안]

A. 홍보 방식 개선의 필요성

(a) 홍보를 통한 혈액공급 증가

1. 잘못된 인식 개선

헌혈 홍보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출처:정혜경(2004),헌혈태도가 재헌혈의지 및 헌혈권유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TV나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헌혈지식 About Blood Donation	
헌혈의 필요성	+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오늘의 혈액정보	+
헌혈과정	+
혈액검사	+
혈액제제	+
혈액공급	+
혈액관리시스템	+
혈액상식	+
수혈상식	+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Q 헌혈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 Q 헌혈을 하면 건강에 나쁘다?
- Q 헌혈을 통해 에이즈 등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 Q 헌혈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다이어트에도 좋나요?
- Q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 Q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리지 않나요?
- Q 전에 헌혈을 하려다가 못하였는데 헌혈이 가능한가요?
- Q 나의 헌혈기록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다는데....?
- Q 에이즈검사도 하나요? 왜 검사를 통보해주지 않나요?
- Q 에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땐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Q 언론 보도를 보면, 에이즈 감염혈액이 수혈되었다고 하는데....?
- Q 적십자사에서 피 감사한다...?

2. 건강검진 부적격자

- 혈장 성분 헌혈 장려

말라리아 관련 제한(위험)국가 해외
여행 등으로 인하여 **건강검진 부적
격자** 중에서 전혈헌혈은 불가 하지
만 성분헌혈은 가능한 사람에 초점
을 맞추어 **혈장 성분헌혈**을 증진하
기 위한 홍보를 해보자.

필수04v05(2016.8.25)
저작권 등록번호 : 제C-2013-020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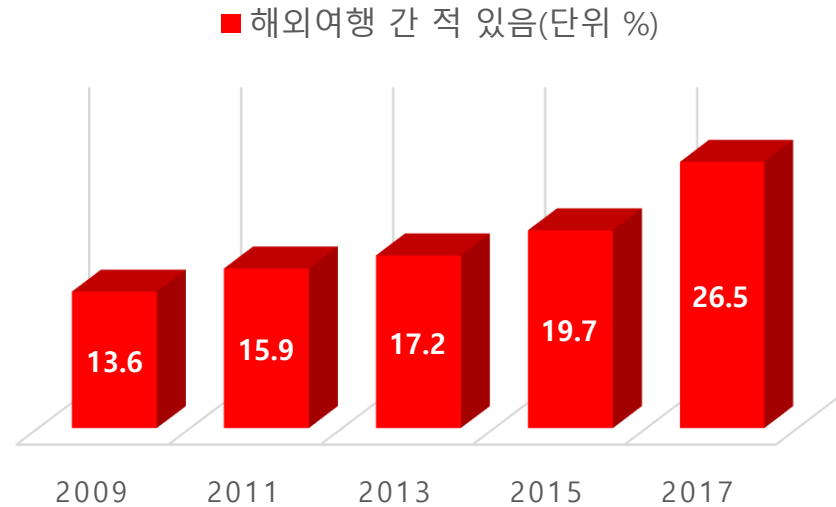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전지역	일부지역	전지역	일부지역	전지역	일부지역	일부지역
아이티 (라리디 합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엘리자,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령기아나	가나,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비스,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루완다 마다가스카르 마요트(프랑스령),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넬, 부룬디, 부룬디,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톱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서사하라 스와질란드 일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카보베르데 케냐 천지니아	동티모르 미얀마 솔로몬제도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마(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루만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아래 국가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이상~6개월 미만 숙박) 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출처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2016.8.9)

3. 동절기 헌혈 증대

- 혈장 성분 헌혈 장려



현재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 추세이다.

해외여행 시 1개월간 헌혈이 금지이고 말라리아 제한(위험)국가 같은 경우 최소 1년간 전혈과 혈소판 헌혈이 불가하다. 따라서 해외여행의 증가와 헌혈률 감소의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3. 동절기 헌혈 증대 - 혈장 성분 헌혈 장려

```
> table(result$winter2,result$T2)
```

	from160,000	from90,000 to90,000	
few	1	1	3
many	4	1	0
middle	1	4	0

```
> chisq.test(result$T2,result$winter2)
```

Pearson's Chi-squared test

data: result\$T2 and result\$winter2
X-squared = 12, df = 4, p-value = 0.01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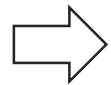
```
> table(result$winter2,result$N3040)
```

	1	2	3
few	5	0	0
many	0	2	3
middle	1	3	1

```
> chisq.test(result$winter2,result$N3040)
```

Pearson's Chi-squared test

data: result\$winter2 and result\$N3040
X-squared = 13.3, df = 4, p-value = 0.009899



동절기 헌혈자 수와 10대,20대 와 30대,40대의 헌혈자 수를 각각 **독립성 분석**을 한 결과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30,40대 또한 동절기 헌혈자 수와 관계가 있으므로 10대,20대 학생들의 방학 뿐만 아니라 3,40대의 해외여행 또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T :10,20대 헌혈자 수
1:90,000 건수 이하
2:90,000~160,000건수
3:160,000건수 이상

N3040 :30,40대 헌혈자 수
1:45,000 건수 이하
2:45,000~65,000건수
3:65,000건수 이상

Winter:동절기 헌혈자 수
1:31,000건수 이하
2:31,000~55,000 건수
3:55,000건수 이상

A. 홍보 방식 개선의 필요성

(b) 혈소판 성분헌혈 홍보

텍스트 마이닝

도움, 동참, 필요, 구조, 참여, 긴급, 구급...


➡ 혈소판 성분 헌혈에 대하여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



홍보 방식 개선의 기대 효과

잘못된 인식 개선
정확한 정보 전달



헌혈자 수 

성분 헌혈 증대



건강 진단 부적격자 혈장 성분 헌혈로 유도



동절기 헌혈률 감소 해결



혈소판 부족 문제 해결

❖ 홍보 방식 개선 방안

현재 홍보 방식의 문제점

- ① 1,20대를 주요 타겟층 삼아 유명 아이돌
- ② 유명인 위주의 홍보로 높은 홍보비용 대비 낮은 효과
- ③ 정보 전달의 부재



❖ 홍보 방식 개선 방안

- ① 중장년층 헌혈자를
타겟팅한 홍보 필요
- ② 헌혈에 대한 정보 전달
(잘못된 인식 정정,
성분헌혈 알리기 등)
- ③ 인물 위주의 광고 대신
창의적인 문구와
일러스트 등 시각예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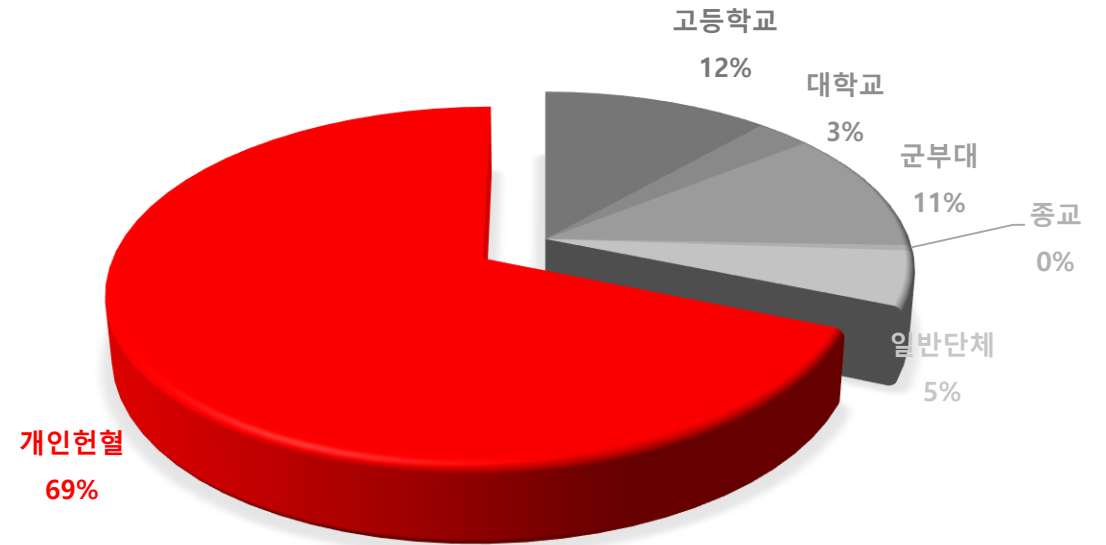
C. 3040 헌혈 늘리기

30, 40대 헌혈 방식 분석

다음 통계를 통해 30대,40대 헌혈자는 개인 헌혈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헌혈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이 많은 위치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이나 한마음 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2018 장소별 헌혈 통계



PART 4_ 해결 방안

```
Call:
lm(formula = place ~ Teens + P10, data = result)

Residuals:
ALL 13 residuals are 0: no residual degrees of freedom!

Coefficients: (1 not defined because of singularitie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3           NA      NA    NA
Teens185,460         40           NA      NA    NA
Teens30,199           2           NA      NA    NA
Teens32,222           3           NA      NA    NA
Teens38,665           4           NA      NA    NA
Teens40,310           6           NA      NA    NA
Teens46,763           4           NA      NA    NA
Teens48,114           8           NA      NA    NA
Teens51,265           2           NA      NA    NA
Teens68,909          10           NA      NA    NA
Teens76,732           6           NA      NA    NA
Teens78,570           8           NA      NA    NA
Teens85,115           5           NA      NA    NA
P10                  NA           NA      NA    NA
```

```
Residual standard error: NaN on 0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1, Adjusted R-squared: NaN
F-statistic: NaN on 12 and 0 DF, p-value: NA
```

```
Call:
lm(formula = place ~ Twenties + P20, data = result)

Residuals:
ALL 13 residuals are 0: no residual degrees of freedom!

Coefficients: (1 not defined because of singularitie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6           NA      NA    NA
Twenties323732       37           NA      NA    NA
Twenties38,207       -1           NA      NA    NA
Twenties40,146        3           NA      NA    NA
Twenties44,156       -1           NA      NA    NA
Twenties54,043        1           NA      NA    NA
Twenties71,423        3           NA      NA    NA
Twenties73,879        5           NA      NA    NA
Twenties85,500        7           NA      NA    NA
Twenties86,781        1           NA      NA    NA
Twenties9,815        -3           NA      NA    NA
Twenties94,578        5           NA      NA    NA
Twenties97,890        2           NA      NA    NA
P20                  NA           NA      NA    NA
```

```
Residual standard error: NaN on 0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1, Adjusted R-squared: NaN
F-statistic: NaN on 12 and 0 DF, p-value: NA
```

지역별 헌혈의 집 수에 대해 각각 지역별 10대, 20대의 헌혈자의 수와 인구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Residual standard error: NaN on 0 degrees of freedom와 같은 결과로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30,40대 헌혈률은 헌혈의 집, 헌혈 카페와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혈의 집 수 분석

지역별 헌혈의 집 수에 대해 지역별 면적과 총인구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p값이 **0.03463**이 되므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헌혈의 집 수에 대해 지역별 30,40대 헌혈자의 수와 인구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p값이 **2.179e-08**이므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 헌혈의 집 수는 적당하다.

➡ 헌혈의 집 수를 늘리는 방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call:
lm(formula = place ~ total_people + area, data = result)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1.6850  -1.4578   0.2614   1.5213  18.9247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8.584e+00  8.446e+00  -1.016   0.3334
total_people  2.256e-06  7.289e-07   3.095   0.0113 *
area         2.721e-01  1.704e-01   1.597   0.1414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7.94 on 10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4896,    Adjusted R-squared:  0.3875
F-statistic: 4.797 on 2 and 10 DF, p-value: 0.03463
```

```
call:
lm(formula = place ~ B34 + P34, data = result)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2.7900  -0.9622   0.2646   0.6902   3.7679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9.405e-01  8.061e-01   1.167   0.270
B34          2.024e-04  1.403e-05  14.431 5.07e-08 ***
P34         -1.030e-06  6.327e-07  -1.628   0.135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1.904 on 10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9706,    Adjusted R-squared:  0.9618
F-statistic: 165.3 on 2 and 10 DF, p-value: 2.179e-08
```


- ✓ 3,40대 헌혈자가 헌혈의 집, 헌혈 카페를 이용한 개인 헌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 헌혈의 집 수는 적당하여 헌혈의 집을 더 설립할 필요는 없음

➡ 3040 세대의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개선 및 보완하는 방안**을 채택

10 20
30 40

헌혈의 집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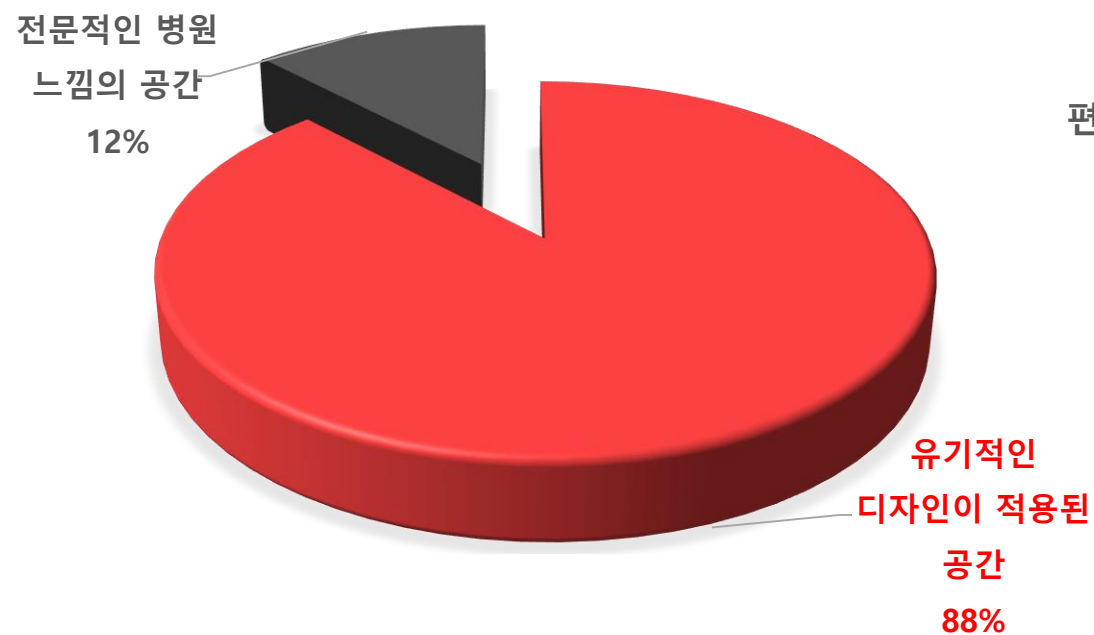
a. 기존 헌혈의 집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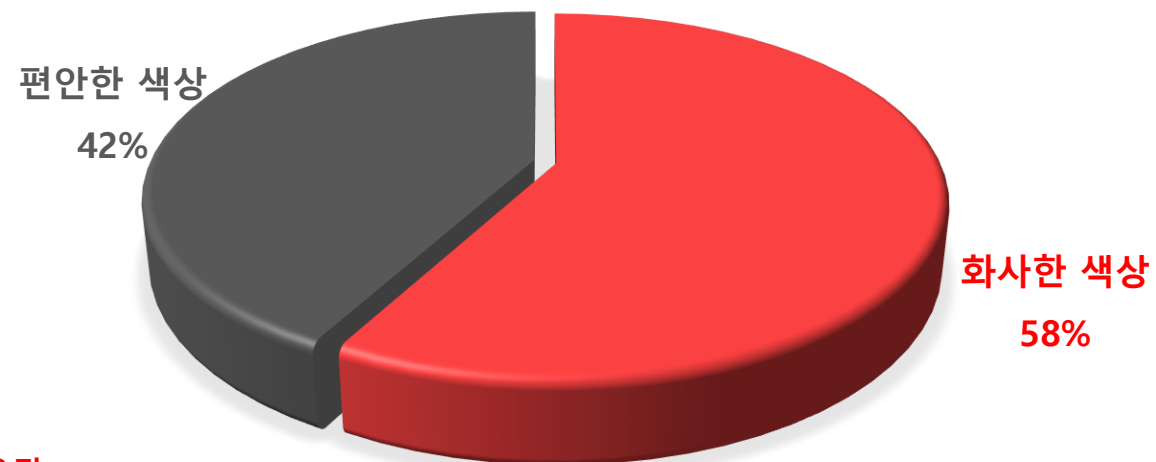
➡ 병원같이 삭막하고 딱딱한 느낌

b. 개선 방향 모색 – 1. 헌혈 공간 선호 분석

헌혈 공간의 이미지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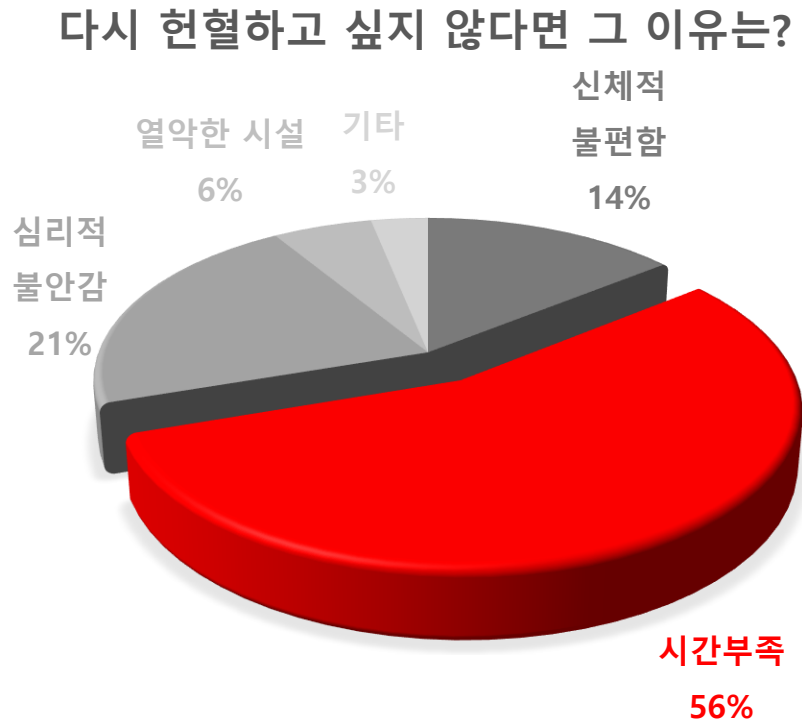


색상 선호도



➡ 병원 느낌을 피하고 화사한 색상을 이용한 공간 디자인 필요

b. 개선 방향 모색 – 2. 인식 분석



헌혈시 걸리는 시간을 보면

전혈헌혈은 약 10-15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성분헌혈 같은 경우 **혈장은 약 30-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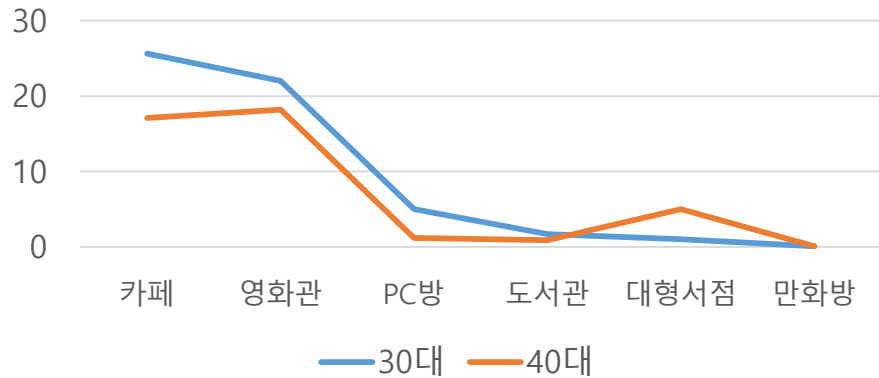
혈소판, 혈소판 혈장은 약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30,40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싶기에 누군가를 위한 헌신보다는 개인 휴식을 더 바란다.

만약 헌혈을 타인을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함으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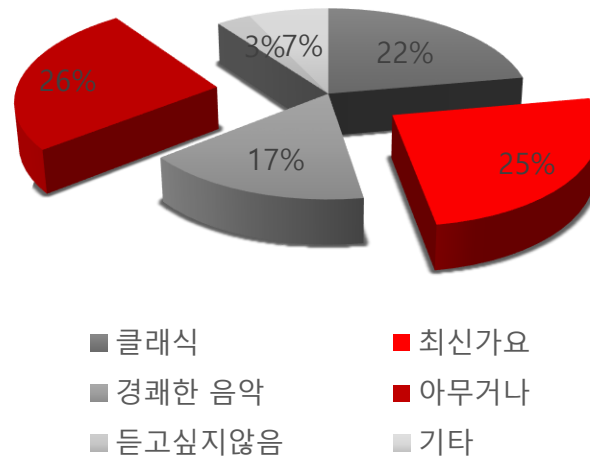
b. 개선 방향 모색 – 3. 취향 분석

2018년 연령별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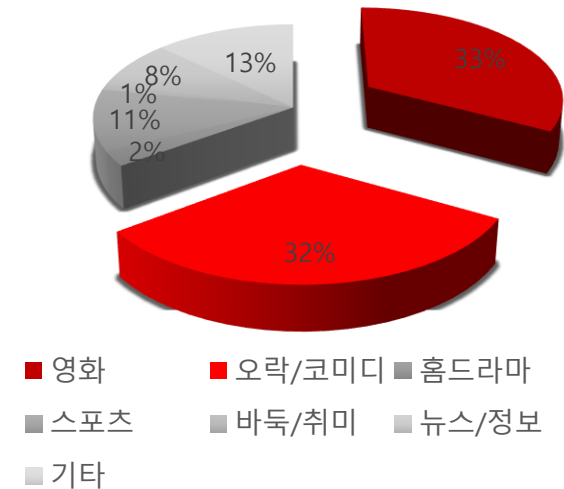
➡ 카페, 영화관, 서점 등의 비율이 높다

헌혈시 듣고 싶은 음악은?



➡ 영화나 오락/코미디의 비중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취향이 다양하여 일괄적인 문화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헌혈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시 보고싶은 프로그램?



b. 개선 방향 모색 – 4. 공간 분석

헌혈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은 헌혈하고자 찾아오는 헌혈자들이 지각하는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헌혈자의 재 방문 의도 및 호의적 구전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혈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재 헌혈 의도 미치는 영향 연구>

헌혈자가 휴식하는 공간과 대기자, 동반자가 머무르는 대기공간은 주목적인 휴식 및 대기 와 더불어 헌혈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재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넷 공간 이나 문화 공간,이벤트 공간을 두어 헌혈에 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이는 효과를 수 있다.

(...)

한번 이용한 공간이나 대상의 이미지가 강하면 다시 찾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헌혈 공간 이용 시 방문자가 공간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은 체류시간의 부분을 차지 하는 공간인 대기 및 휴게 공간이다.

<헌혈 공간 실태분석을 통해 본, 공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간마케팅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휴게 공간을 이용한 공간 마케팅이 필요하다

c. 힐링문화공간으로 확대,개선

① 영화, TV시청이 가능한 프라이빗 존 설치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의 수만개의 영화,
TV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월정액 멤버십
프로그램 이용

➡ 적은 유지 비용으로 최신영화,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 가능하며 강한 동기유인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헌혈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c. 힐링문화공간으로 확대,개선

① Ebook 리더기 비치

수만권의 무제한 독서 월정액 서비스 이용,

➡ 적은 유지 비용으로 기존의 실물 책 비치보다
공간의 효율성 증대,
헌혈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만족감 극대화



d. 기대효과

- ① 공간 이미지 개선으로 호감가는 인상 -> 재방문율 증가
- ②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헌혈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장점

이타적 헌혈자 -> 1회성 기념품, 영화쿠폰 등과 같은 물질적 보상보다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헌혈로 인한 보람, 자긍심과 더불어 전체적인 만족감에 크게 기여

➡ 다회 헌혈자 증가 기대

보상추구 헌혈자 -> 기존의 제한적인 범위의 보상이 아닌 각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책 이용으로 강한 동기유인 부여

➡ 초회 헌혈자 유입 기대

[05 결론 요약]

혈액공급을
증가 시키자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1. 잘못된 인식
2. 건강진단 부적격
3. 동절기 헌혈 감소

문제B. 혈소판 부족

계속 늘어나는 혈소판 수요에 비해 혈소판 공급이 너무 적다.

문제C. 1020에 치우친 우리나라 헌혈

-늘어나는 혈액의 수요에 비해 혈액의 공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방안A. 홍보 방식 개선의 필요성

(a) 홍보를 통한 혈액공급 증가

1.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
-TV나 라디오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 홍보가 필요하다.

〔2.건강검진 부적격자

3.동절기 헌혈 증대

-혈장 성분헌혈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b)혈소판 성분헌혈 홍보

방안B. 3040 헌혈 늘리기

-3040 세대의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개선 및 보안

문제A. 헌혈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

1. 잘못된 인식
2. 건강진단 부적격
3. 동절기 헌혈 감소

문제B. 혈소판 부족

계속 늘어나는 혈소판 수요에 비해 혈소판 공급이 너무 적다.



방안A. 홍보 방식 개선의 필요성

(a) 홍보를 통한 혈액공급 증가

1.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

-TV나 라디오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 홍보가 필요하다.

〔 2.건강검진 부적격자

3.동절기 헌혈 증대

-혈장 성분헌혈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b)혈소판 성분헌혈 홍보

문제C. 1020에 치우친 우리나라 헌혈
-늘어나는 혈액의 수요에 비해 혈액의 공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방안B. 3040 헌혈 늘리기
-3040 세대의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개선 및 보안

Thank You

